

2025-2

공연장
대관지원
부평영
아티스트
신앤굿즈

ESG·인권경영
문화포럼
문화
아카이브

지역무지천지원사업

부평아트센터

2011 부평아트센터
부평구청소녀스튜디오 개관

2026

부평구문화재단
창립 20주년

2016 예술경영 우수
전통예술법인 인증

2015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

2021 법정 통합
문화도시지정

2017 부평생활문화센터 개관

2010 부평아트센터 개관

**아름다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가꾸어주세요**

나
이
다
하
는
것

**열아홉,
2025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은.**

2025.01.15.(수)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

부평문화포럼

Divi 49

2025.01.15.(수)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

안녕하세요, 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재단의 지난 19년을 돌아보며 다가올 20주년을 준비합니다.
도시가 바라본 재단, 재단이 그려갈 도시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을 모십니다.

2025.01.15.(수) 14:00
열아홉, 2025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은.

2025.01.16.(목) 14:00
스물, 2026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은.

열아홉, 2025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은.

구분	내용	시간	소요시간
1부		사회: 배윤수 기획경영본부장	
개회	내빈 소개 및 축사, 개회사	14:00~14:05	5'
2부		좌장: 안영노 안녕 소사이어티 대표	
발제1	출범 20주년을 앞둔 부평구문화재단의 미션과 가치 점검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14:05~14:20	15'
발제2	결에서 바라본 부평구문화재단의 현주소 손동혁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14:20~14:35	15'
발제3	우리의 방향을 묻다,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의 생태계 김태연 문화기획자, 예술작가	14:35~14:50	15'
휴식	휴식 및 토론 준비	14:50~15:00	10'
종합토론	안태호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서광일 부평풍물축제 기획단장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김창길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	15:00~15:40	40'
질의응답	참가자 질의응답	15:40~15:55	15'
3부		사회: 배윤수 기획경영본부장	
폐회	기념 촬영 및 공지사항	15:55~16:00	5'



출범 20주년을 앞둔 부평구문화재단의 미션과 가치 점검 · 4p

김창수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결에서 바라본 부평구문화재단의 현주소 · 20p

손동혁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우리의 방향을 묻다,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의 생태계 · 33p

김태연 | 문화기획자, 예술작가

좌장 : 안영노 |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안태호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50p

서광일 | 부평풍물축제 기획단장 · 53p

김유정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 55p

김창길 |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 · 59p

출범 20주년을 앞둔 부평구문화재단의 미션과 가치 점검

김창수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출범20주년을 앞둔 부평구문화재단의 미션과 가치 점검

김창수(인하대 초빙교수)

Ⅰ 출범20년의 부평구문화재단

○ 부평구문화재단이 출범 20년을 앞둔 2024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지만 사장되거나 계획과 달리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 계획이 현실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행의 주체가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겠다. 이 글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새로운 목표와 가치 체계가 지닌 의미를 검토하고 내용을 부연함으로써 재단 임직원들이 새 계획을 실천하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데 일조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가치체계: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 핵심가치(value)는 조직의 경영의 정수(精髓)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관이나 조직의 장기적 이상과 목표, 역할과 사명, 전략 실현의 방법론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비전은 조직이나 기구가 장기적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할 이상적 미래의 상태나 모습을 말하며, 미션은 조직의 존재 이유와 현재의 역할이나 사명을 말한다. 핵심가치(Core-value)는 미션을 실현하고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전략과제를 실현하면서 적용해야 할 가치이다. 효율적인 조직의 사업과 일상 활동은 이같은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로 표현되는 MVV체계가 유기적 연관 속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다. 비전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활동의 결과에 따라 목표나 방법을 수정할 수도 있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 2005년 12월, 부평구 문화재단이 부평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부평문화재단은 단기적으로는 부평 지역 내의 공공문화시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과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나 중장기적으로, 부평문화재단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문화 사업 및 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향했다. (설립타당성연구, 2005) 재단은 최소인력으로 시작하여 위탁받는 시설과 사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단계별로 이뤄졌다.

○ 2006년, 부평기적의도서관과 부평역사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작했

다. 재단사무실은 삼산동 부평역사박물관 사무국과 겸하고 있었을 때다. 설립 초기는 상임이사 체제로 시설을 제외한 재단사무국 직원은 4명으로 시작했다.¹⁾ 설립 직후 체계적인 문화재단 고유 목표나 사업계획을 정립하지 못했으며 조직이나 예산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문예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부평 삶의 문학상』을 제정하여 운문과 산문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이 첫째의 사업이었다. 설립당시의 목적과 사업은 「부평문화재단 조례(안)」(2005)에 나타나 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평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고 부평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평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평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등 부평구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개관 예정인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부평구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자문
5.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2024.9.23.개정)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의 규범처럼 재단을 지역문화예술행정의 중심적 기관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정보 시스템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4조(대상사업)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2.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3.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사업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1) 부평기적의도서관 6명, 부평역사박물관 4명 규모로 유지됐으며, 부평아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16명의 직원이 늘어났다.

9.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재단이 관리한 시설은 도서관운영, 생활문화, 문화도시 사업 등으로 확장됐다. 2009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지역도서관이 설립되면서 그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후 “문화예술진흥법·도서관법 개정·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 제정과 개정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부평문화재단도 시설 중심 운영에서 도서관운영, 지역·생활·문화도시 중심으로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은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구립도서관 6개관, 디지털뮤직랩(D-Lab), 문화공간 시소,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가 있다.

○ 법정문화도시 지정: 2016년부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축적한 결과 예비도시를 거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과 ‘시민, 연대, 창조’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사업을 추진해왔다.

② 『2017증장기발전계획연구』의 비전과 핵심가치

○ 비전: 2017년 증장기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은 “문화적 삶과 창조적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 소통광장” 이었는데, 이 비전은 부평구문화재단을 소통광장으로 비유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창조적 지역문화생태계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부평구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였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설명문이 되어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 핵심가치: 비전과 함께 도출한 핵심가치는 “문화감수성, 역동성, 공감성”은 문화분야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다.

○ ‘문화감수성’은 생활문화의 확대와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을 제고하고 거점공간을 활용한 생활 속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 ‘문화감수성’의 핵심은 구민의 능동적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고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략과제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공공성 서비스, 도서관 커뮤니티화 등의 전략과제나 방향의 공통 가치라기 보다는 비전의 실현 결과에 가까우며 실제 사업들을 보면 ‘공공성’의 실현이다.

○ ‘역동성’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소비시장 및 창작환경구축을 통해 역동적인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 ‘역동성’ 가변적이고 입체적이며 적극적인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가치를 ‘예술로 발전하는 지역’이다. 전략과제는 예술생태계의 조성, 지역문화정체성 강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표예술브랜드 창출하는 것이다. 지역성과 예술생태계 조성 등의 상이한 과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핵심가치가 추상화되고 말았다. 사업에서는 지역문화정체성을 강화하는 단일 지역 정체성을 추구 전략과 모순점을 드러냈으며, 다양성의 가치는 담아내지 못했다. 공분모끼리 묶어서 나누어야 했다.

【그림 N-4】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 도출



○ ‘공감성’은 재단과 구민, 지역내 유관 기관들 간 소통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부평구민이 능동적으로 지역문화에 참여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전략 방향은 소통으로 융합하는 재단을 설정하고 있는데 하위 전략과제들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조직활동과 네트워크를 열거하고 있다. 자치와 소통을 통해 공감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가치설정이겠다. 그러나 공감성은 제1핵심가치인 ‘문화감수성’과 혼동될 수 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도 주목했어야 했다.

【표Ⅳ-15】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방향

핵심 가치	문화감수성	역동성	공감성
핵심 주체	구민	지역	재단
전략 방향	문화로 활력 있는 구민	예술로 발견하는 지역	소통으로 융합하는 재단

『2017부평구문화재단중장기발전계획』,75쪽

③ 「2024-28 부평구문화재단중장기발전계획연구」의 가치 체계

○ 부평구문화재단은 2024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 핵심가치는 2017년 중장기 계획이 지닌 보편적 가치체계를 부평구문화재단의 환경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션	함께, 누리는 시민문화의 터전/ 함께, 만드는 지역 예술의 장(場)			
비전	일상에 예술이 흐르는 도시, 부평			
핵심가치	시민문화권	지역성	문화의 사회적 역할	지속성장

1) 미션과 비전

부평구문화재단의 과업은 1)문화재단을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터전으로 만들

어 가는 것과 2)지역의 문화주체들이 예술을 창조하는 마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업을 달성함으로써 '일상에 예술이 흐르는 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가치체계이다. 여기서 '일상에 예술이 흐르는 상태'란 예술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일상화되는 최고 수준의 문화도시를 의미한다.

2) 핵심가치

□ 핵심가치는 공공문화기관으로서 부평구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초이자 방법론으로 설정한 것이다. 2024년 계획에서는 2017년의 3대 가치였던 "문화감수성", "역동성", "공감성"을 구체화하여 4대 핵심가치로 재정립했다.

- 1)기본적 책무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기본권으로서 "시민문화권"
- 2)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는 "지역성",
- 3)문화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미의 "사회가치"
- 3)문화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구축을 위한 "지속성장"

이 핵심가치들은 구별되지만 또 상호 연관관계에 있다. 즉 "문화기본권"은 시민 누구나,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지향이며, 특히 "사회가치"는 단순히 협의의 문화예술진흥 영역을 넘어서 문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문화활동을 지향해야 하는데, "지속성장"은 앞선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적 가치로서 부평구문화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지향한다는 것이다. (95쪽)

4) 핵심가치의 의미와 부연

1) 시민문화권_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신과 방법

○ 시민의 '문화권' 보장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한다.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이같은 문화기본법의 문화권은 그동안 논의돼온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신을 집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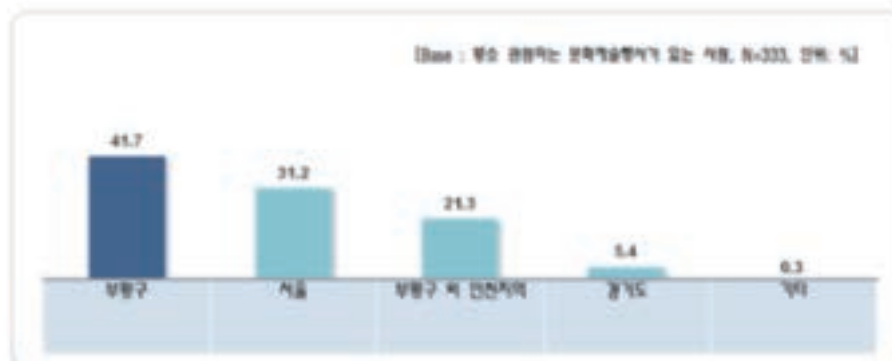
○ 문화민주화는 전문예술가들이 창조한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문화 향유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민주주의는 비전문가나 시민들의 창조적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적 역동성을 활성화하고 문화의 사회

적 자산을 확대해가는 것을 강조한다. 요컨대 문화민주화가 기존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나 문화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문화향유권 실현을 중시하는 개념이라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참여권의 확대와 심화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두 정책 기조는 모두 중요하나 「문화현장」과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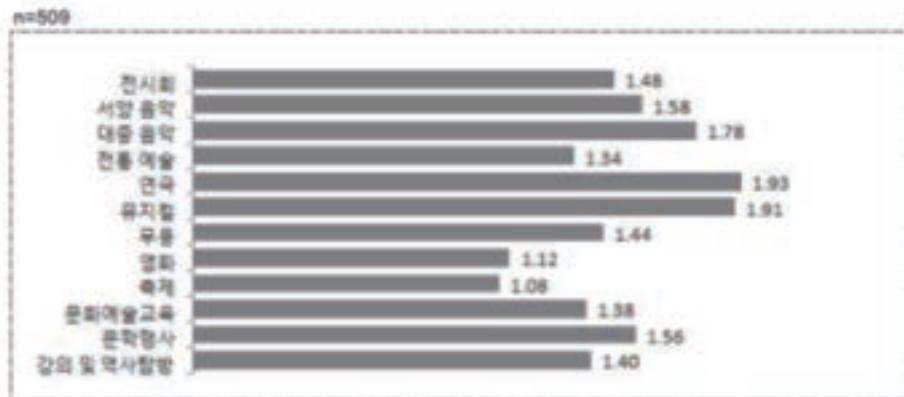
○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적 다원성 추구 문화주체의 능동성과 자율성의 원칙이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민주주의의 실천을 '생활문화'를 통해 제도화했다. '생활문화'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며(culture and art in life),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voluntary participation)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community)이라 할 수 있다. 즉 생활문화예술은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학습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계발하는 자발적 공동체 활동"이다. 생활문화예술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생활과 밀착된 활동, 시민 주체인 활동, 자발적인 참여, 공동체 활동 등이다. 생활문화예술에서 '생활'은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속의 문화활동, 예술활동이 강조되면서 생활문화예술활동의 지원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적 활동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 '시민문화권'과 관련하여 부평구민의 문화행사 참여도는 물론 실제 문화활동 지수도 낮은 편이다. 특히 부평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상당 부분 서울이나 부천에서 이뤄지는 역외문화활동 혹은 '탈부평화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그 원인은 주간인구지수 특성 및 연담도시화현상(Conurbation)과 관련될 것이나 더 엄밀한 분석을 통해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111-2-6】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역



<2012 부평구 문화지표조사>



<2017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연구>

2) '지역성'_ 정체성과 특성화 개념의 위험성에 대한 주석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동어반복의 문장으로 이뤄져 있거니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핵심이다. '공통성'이 정체성과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통성은 어떻게 추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공통성은 어떤 효용가치가 있을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양한 지역문화를 단순화, 의사類似 객관화로 치달아 갈 가능성이 있다. 인천의 경우 중구와 동구의 개항장 문화권역,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의 원인천 문화권역, 부평계양서구 문화권역, 옛 강화유수분 문화권역, 용진군과 같은 해양권, 경제 북구권역은 상이하며 문화권역내에 소문화권역도 존재한다. 문화현장에서 사용되는 정체성은 상당수가 주관적이거나 인상비평 수준이다. 지역 문화 연구에서 정체성 개념이 지닌 협착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몇 가지 시도가 가능하다. 즉 다중성과 입체성을 전제로 한다면 정체성의 유일주의나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입체적 정체성이나 유연성을 강조하는 플렉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가 대안적 개념이다. 더 안전한 것은 '특성'이나 '성격'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체성'이 지닌 부정적 요소를 소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체성을 대신 할수 있는 말로는 한자어론은 #진면목(眞面目)이 있고, 우리말로는 '참모습'이 있다. 대상에 대한 특성은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 고찰과 실태 분석, 변화 추이 분석 등을 통해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동일성을 전제로 차이를 보는 것은 결론이 정해진 논쟁일 뿐이다. 니체가

말했듯이 모든 차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동일성을 부정했을 때 순수한 '차이'가 남는다.²⁾ 이런 세계는 어떠한 동일성도 없이, 어떤 보편적인 척도도 없이 '다른' 세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성찰하지 않으면 다양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

○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성화의 논리도 성찰의 대상이다. 이른바 '특성화'는 경쟁을 최소화하고 지역 보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집중과 선택 전략의 일환이다. 여기서 특성화의 시혜자는 누구인지 질문해야 한다. 지역을 위한 특성화가 아니라 '나랏님'에게 바치는 진상품과 같은 특성화, 천자에게 바치는 조공과 같은 특성화여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의 특성화는 지역의 특수한 조건이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계획이 아니라 국가나 중앙정부의 국토관리 전략에 가깝다. 그래서 서울(중앙)의 특성화는 없었던 것이다.

○ 특성화 때문에 지방은 오히려 영원히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수성에 몰입하면 다양성과 자족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은 특정한 기능을 가진 도시들이다. 베드 타운이거나 농업이나 공업, 혹은 물류 인프라를 담당한다. 경제적으로 특화되지만 정치와 교육 문화 소비는 서울에 의존하는 불균형 관계이다. 이 같은 의존관계로 주변부 도시 주민들의 정주성은 떨어지고 있다. 기능주의적 도시정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이다. 쇠퇴일로를 걷는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대명사가 된 미국 디트로이트시를 보라.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미국 제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왔지만 미국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디트로이트시는 파산하고 말았다. 디트로이트는 지금 범퍼카가 가장 높은 위험도시가 되었다.

○ 특성화 전략은 지역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착시켜 역동적 잠재력이나 자족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기본 기능과 다양성의 기초위에 추구해야 한다. 일종의 필요악이다. 문화예술에서도 기본을 소홀히 하고 특성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다양성은 지역과 도시에서도 중요한 자원이다. 특성화는 다양성의 기초위에 추구해야 한다. 정부의 문화도시사업에서 문화를 특정문화분야, 특정 예술 장르 중심으로 특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이같은 문화특화론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의 실현처럼 보이지만, 해당 지자체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 폭을 좁힌 단순화일 수 있다.

○ 특성화 전략은 언제나 다양성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협약'(2005)에서는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교류와 혁신,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

2) 니체, 『비도덕적 의미로 본 진리와 오류』

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시민 생활과 문화 활동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적 자원이며 문화적 자주성과 사회적 다원성을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다양성은 공공성이나 평등성에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

○ 또한 다양성이란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양성의 구현방식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밀착형 시설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유형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성화된 시설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극장의 경우 연극공연을 위해 설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수한 연극을 유치하여 공연함으로써 지역 연극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 전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연극 생태계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으로써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 「문화헌장」에 천명한 원칙처럼 시민은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국내의 타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양성은 문화의 특성에서 도출되는 가치이다. 개방성과 평등성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의 사회적 역할

○ 노르웨이 리우칸 마을에 설치된 인공태양 조형물은 예술가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리우칸 마을은 주민 3500명이 사는 작은 도시이다. 이 도시는 산간 협곡에 위치해 있어서 해마다 9월과 3월 사이에 마을은 해발 1883m 산그늘에 가려 어둠의 마을이 된다. 마을 주민들이 햇빛을 쬌려면 곤돌라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했다. 햇빛을 쬌지 않으면 비타민D 부족으로 구루병에 걸리고 우울증도 심해지기 때문이다.

○ 2005년에 이 마을로 이사 온 안드레생이라는 예술가는 마을에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 제안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예술가의 낭만적 상상으로만 여겼다. 효과도 의심스럽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리우칸 주민들은 동조하여 인공태양거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이 꾸려졌다. 리우칸 시장도 태양거울 프로젝트를 지지하게 되면서

약 9억원에 달하는 모금이 이뤄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리우칸 마을은 마침내 이듬해에 해방되었다.

[그림 1] 노르웨이 리우칸의 태양광 거울



○ 예술가도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술가의 예술적 실천이 특정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때로 예술가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로컬리티를 반영하기도 한다. 가장 적극적 지역활동은 '마을예술가'의 활동을 통해 볼 수 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존의 공간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새롭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예술가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되며, 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도 주민들의 관습화된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예술인들이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공간이 창조적 예술작품으로 바뀐다. 마을의 담벼락이나 비려진 땅은 회화나 조각, 건축 공예 작품으로 채워진다. 문화 예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대안적인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것을 문화 예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법으로써 문화 예술이 도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 예술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독립영화를 발굴하고 상영함으로써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경우나 발달장애인들의 작업물을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새로운 관점의 아티스트가 등장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다. (김수진, 「예술경영」 482호) 예술활동을 통해 개인이나 사

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도 있다.

○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조직이 형성되거나, 문화 예술과 관련된 관광, 여행 등의 관련 사업에 영향을 끼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낙후 쇠퇴한 구도심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은 상당수가 문화적 도시재생이다.

○ 업사이클링아트 작가들은 버려진 물건을 모아 예술품으로 승화시킨다. (광명업사이클링아트센터 사례) 지구 생태계 및 환경보전 또한 예술적 벤처들의 도전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예술은 이를 접하는 대상에 대한 소구력이 높기 때문에, 기후 위기나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창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소재나 제작 방식 등을 고안하여 경제활동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삿포로 모에테누마 공원은 거대한 쓰레기장이었지만 지금은 공원 전체가 예술품으로 바뀌었다.

4) 지속성

‘지속성’(sustainability)은 문화공공성의 가치인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이 구현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이다. 지속성은 안정적 운영의 기반위에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문화기관과 시설의 인력, 예산의 변화가 심할 경우 예측가능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문화시설과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성과도 축적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운영예산, 그리고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속성의 구현은 문화기반시설의 노력으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력화중이나 예산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재정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성은 사업과 예산과 조직적 환경의 지속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의 지속성은 연속성으로 나타나며, 운영예산의 안정성은 전년대비 시설 총 운영예산의 증감비율이 그 지표이며 조직지속성은 전문성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문화전문인력의 비율로 나타난다.

5] 핵심가치의 평가지표 및 정책제언

1) 핵심가치 평가지표

핵심가치는 전략목표에 스며들어야 하며 전략과제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가치의 구현여부는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평가하는 척도(지표)가 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집중과 선택, 필요하다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 문화 예술의 생활화: 다수의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 동호회와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가?
- 지역성: 도식적 로컬리티를 벗어나 다양한 지역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문화적 파급 : 중점사업들은 지역 문화 예술 기관과 단체, 행사와 프로그램, 타 장르와의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문화전문인력 유치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 사회 경제적 파급: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문화예술관련 산업과 지역 사회경제적 기업의 활성화가 가능한가?
- 지속가능성 : 추진사업의 성과는 축적될 수 있고 사업목표 기간 중 자생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2) 정책제안: (가칭)재단혁신전략TFT구성

- 목표: 2024-2028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의 실행과 사업적용 방안 검토
- 운영기간: 2025.3월~6월 (4개월)
- 구성 : 본부장(3) 팀장(3)
- 논의주제
 - 환경변화 대응방안, 미션,비전,핵심가치 등 경영 목표와 전략사업 재구조화
- 운영방식 : 주1회 정례회의 및 주제별 확대회의
- 2000년 인천문화재단 미래전략TFT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참조
- 「2024중장기연구」의 정책제언에서도 “혁신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적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161쪽)

■ 참고문헌

- 김창수, 「부평 문화도시전략과 시사점」, 부평문화도시 토론회 발표문, 2015.
- 김창수, 부평의 문화가치 재창안, 부평포럼 발제원고, 2023.
-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칭)부평문화재단 설립타당성조사검토, 2005
- 부평구문화재단, 2017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요약본), 2017.
- 부평구문화재단, 2012부평구문화지표개발 및 조사연구, 2012.

■ 보론: 캠프마켓의 역사문화적 가치

문광연' 보고서에서는 캠프마켓이 "부평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간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캠프마켓 문화공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일본군 군수기지와 관련한 블랙 투어리즘, 미군 기지와 관련한 대중문화 관광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관광과 역사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블랙 투어리즘 혹은 다크 투어리즘이란 전쟁과 학살 등 비극적 역사현장이나 재난 발생 장소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을 말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말을 '역사교훈여행'으로 다듬어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부평의 경우 단일한 성격의 유적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병창 병원건물과 에스컴, 캠프마켓 시설 등의 유산과 부평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는 지하 시설물까지 고려하면, 이연경 교수가 집합적 가치를 강조했듯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노천박물관인 '에코뮤지엄(Eco-Museum)'의 성격이 강하다.³⁾ 전자가 외부인의 관광을 강조하고 있다면 후자는 주체의 기억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유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적 문화유산과 지역 수준의 문화 유산은 보존과 활용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유산의 유일무이성도 중요하다.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에스컴(ASCOM)을 거쳐 캠프마켓까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영향평가에서도 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시설 건축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평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보존 중심의 활용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 가능성도 높다.

조병창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있으며 성격상 세계유산적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병창의 역사적 가치는 국가사적지에 해당한다. 보통 문화재는 건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존 건축물의 가치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상 건축물 뿐 아니 지하시설물을 비롯한 장소가 지니고 있는 종합적 맥락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자칫 건축물 중심으로 논의하면 애관극장 보존 운동처럼 될 우려도 있다.⁴⁾

부평 시민들은 캠프마켓 반환을 위한 싸움과 조병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조병창의 가치가 부평 역사에 국한된 것인가? 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의 아시아와 대륙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수공장이자 병참기지였다. 조병창 뿐만 아니라 동구 있었던 조선기계제작소 역시 중요한 군수공장이었듯이 인천의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군수공장으로 재편되었으며 도시

3) 인천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관련 유적은 조병창 외에 장수정을 비롯한 군수품 공장이었던 동구의 조선기계제작소, 중구 신흥동의 연합군포로수용소 터, 용진군 울도의 미군폭격기와 일본 수송선의 추락점을 장소 등이 있다.

4) 협동사터에 건립된 애관극장의 문화사적 가치는 인정되나 건축적 가치가 없어 보존 태입의 의의가 적다는 평가를 인천시가 수용함으로써 애관극장 살리기 시민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고 말았다.

전체가 병참기지였으며, 조병창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수탈을 고려하고 강제 징용과 징병을 감안하면 한반도 전체가 병참기지이자 병영이었다. 조병창은 병참기지였던 식민지 현실을 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근현대사 유적지이다. 애스컴시티 주한 미군의 병참기지였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뿌리를 이룬 이른바 ‘기지촌 문화’가 집변 확산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조병창의 역사적 가치는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와 논의에 의해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남아 있으며,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조병창과 캠프마켓이 지닌 역사적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보존과 활용에 관한 논의는 부평이나 인천시의 문제를 넘어 국민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가꾸는 일에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 보존 활용 논의의 주체와 책임 당사자를 확장함으로써 보존을 둘러싼 갈등도 완화하면서 미래지향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에서 바라본 부평구문화재단의 현주소

손동혁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결에서 바라본 부평구문화재단의 현주소

손동혁 sdhyeok2@gmail.com

부평구 문화재단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한 두 개의 관점

- 문화권과 문화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는가?
-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지역문화재단 현황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 * 광역문화재단은 최초에 개인이 설립하였으나, 주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경우임
-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법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전국에 총 132개 지역문화재단 운영 중

- 2023년 기준, 광역문화재단 17개소, 기초문화재단 115개소 운영 중
- 광역문화재단 : 전국 17개(광역시6, 도8, 특별시1, 특별자치시1, 특별자치도1)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7개소 설립, 설립률 100%
- 기초문화재단 : 전국 75개 시에 50개소 설립(설립률 67%), 82개 군에 29개소 설립(설립률 35%), 69개 구에 36개소 설립(설립률 52%)
- 광역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1997년)을 시초로 2000년대 들어 설립 확대
- 기초문화재단은 부천문화재단(2001년)이 지자체 설립 지역문화재단의 시초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기초문화재단 설립 급증

지역 (구·시·도)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설립연도 순)	
	설립	연도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1999	14	강릉시(강릉문화재단), 정선군(정선문화재단), 춘천시(춘천문화재단), 인제군(인제문화재단), 원주시(원주문화재단), 횡성군(횡성문화재단), 영월군(영월문화재단), 홍천군(홍천문화재단), 철원군(철원문화재단), 태백시(태백문화재단), 속초시(속초문화재단), 양양군(양양문화재단), 양구군(양구문화재단), 고성군(고성문화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1997	22	부천시(부천문화재단), 고양시(고양문화재단), 성남시(성남문화재단), 하남시(하남문화재단), 의정부시(의정부문화재단), 화성시(화성문화재단), 안양시(안양문화재단), 용인시(용인문화재단), 수원시(수원문화재단), 오산시(오산문화재단), 안산시(안산문화재단), 군포시(군포문화재단), 김포시(김포문화재단), 용평시(용평문화재단), 여주시(여주문화재단), 용례시(용례문화재단), 구리시(구리문화재단), 과천시(과천문화재단), 용주시(용주문화재단), 양평군(양평문화재단), 포천시(포천문화재단), 여천시(여천문화재단)
경상남도	경남문화재단	2010	9	거제시(거제문화재단), 김해시(김해문화재단), 창원시(창원문화재단), 사천시(사천문화재단), 밀양시(밀양문화재단), 거창군(거창문화재단), 통영시(통영문화재단), 진주시(진주문화재단), 남해군(남해문화재단)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1997	11	경주시(경주문화재단), 청송군(청송문화재단), 청도군(청도문화재단), 안동시(안동문화재단), 영남군(영남문화재단), 영주시(영주문화재단), 포항시(포항문화재단), 예천군(예천문화재단), 봉화군(봉화문화재단), 영덕군(영덕문화재단), 군위군(군위문화재단)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2010	0	-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2009	6	중구(도심재민문화재단), 수성구(수성문화재단), 달성군(달성문화재단), 동구(대구동구문화재단), 달서구(달서문화재단), 북구(북구문화재단)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2009	1	대덕구(대덕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2009	2	금정구(금정문화재단), 부산진구(부산진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04	22	종로구(종로문화재단), 구로구(구로문화재단), 마포구(마포문화재단), 강남구(강남문화재단), 성북구(성북문화재단), 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중랑구(중랑문화재단), 서초구(서초문화재단), 성동구(성동문화재단), 용진구(용진문화재단), 강북구(강북문화재단), 도봉구(도봉문화재단), 은평구(은평문화재단), 금천구(금천문화재단), 동대문구(동대문문화재단), 노원구(노원문화재단), 관악구(관악문화재단), 동작구(동작문화재단), 양천구(양천문화재단), 송파구(송파문화재단), 강동구(강동문화재단), 중랑구(중랑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재단	2016	-	-
울산광역시	울산문화재단	2017	2	남구(고려문화재단), 울주군(울주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2004	5	부평구(부평문화재단), 서구(서구문화재단), 연수구(연수문화재단), 중구(인천중구문화재단), 남동구(남동문화재단)
전라북도	전라북도문화재단	2015	5	전주시(전주문화재단), 익산시(익산문화재단), 완주군(완주문화재단), 고창군(고창문화재단), 부안군(부안문화재단)
전라남도	전라남도문화재단	2009	6	목포시(목포문화재단), 영암군(영암문화재단), 담양군(담양문화재단), 강진군(강진문화재단), 순천시(순천문화재단), 해남군(해남문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재단	2001	-	-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2011	4	청주시(청주시문화재단), 충주시(충주시문화재단), 영동군(영동문화재단), 제천시(제천문화재단)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2013	6	아산시(아산문화재단), 천안시(천안문화재단), 당진시(당진문화재단), 공주시(공주문화재단), 서산시(서산문화재단), 홍성군(홍성문화재단)
총계	17	115	총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9.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0% 설립	

지방자치단체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현황

지역	기초문화재단 수	기초자치단체 수	기초문화재단 설립률
서울특별시	22개소(구22)	25개(구25)	88.0%
경기도	22개소(시22)	31개(시28, 군3)	71.0%
인천광역시	5개소(구5)	10개(군2, 구8)	50.0%
강원도	14개소(시5, 군9)	18개(시7, 군11)	77.8%
충청북도	4개소(시3, 군1)	11개(시3, 군8)	36.4%
충청남도	6개소(시5, 군1)	15개(시8, 군7)	40.0%
대전광역시	1개소(구1)	5개(구5)	20.0%
세종특별자치시	-	-	-
전라북도	5개소(시2, 군3)	14개(시6, 군8)	35.7%
전라남도	6개소(시2, 군4)	22개(시5, 군17)	27.3%
광주광역시	0개소	5개(구5)	0%
경상북도	11개소(시4, 군7)	23개(시10, 군13)	47.8%
경상남도	9개소(시7, 군2)	18개(시8, 군10)	50.0%
대구광역시	6개소(구5, 군1)	8개(군1, 구7)	75.0%
부산광역시	2개소(구2)	16개(군1, 구15)	12.5%
울산광역시	2개소(구1, 군1)	5개(군1, 구4)	40.0%
제주특별자치도	-	-	-
합계	115개소(시50, 군29, 구36)	226개(시75, 군82, 구69)	5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합」, 2023년 / 행정안전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nso.go.kr>에서 일자 재구성

인구규모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현황

인구 규모	기초지역문화재단 수(개소)	기초자치단체 명	지방자치 단체 수 (개)	설립률
3만명 미만	7	봉화군, 양양군, 고성군, 청송군, 군위군, 양구군, 영암군	18개(군 18개)	38.9%
3~5만명	13	부안군, 횡성군, 담양군, 영동군, 청도군, 남해군, 평창군, 태백시, 영월군, 청성군, 영덕군, 강진군, 연제군	32개(군 32개)	40.6%
5~10만명	11	홍성군, 완주군, 대구 중구, 속초시, 과천시, 홍천군, 거창군, 해남군, 예천군, 영암군, 고창군	39개(시 12개, 군 27개)	28.2%
10~30만명	35	강북구, 순천시, 광영시, 순천시, 성동구, 익산시, 군포시, 달성군, 경주시, 거제시, 오산시, 금천구, 이천시, 울주군, 금정구, 책포시, 광릉시, 송주시, 구리시, 서산시, 대덕구, 당진시, 인천 중구, 안동시, 포천시, 종로구, 제천시, 양평군, 서울 중구, 통영시, 여주시, 사천시, 밀양시, 공주시, 영주시	74개(시 36개, 군 5개, 구 33개)	47.3%
30~50만	31	노원구, 포항시, 부평구, 남동구, 김포시, 관악구, 은평구, 의정부시, 강동구, 양천구, 성북구, 대구 북구, 수성구, 서초구, 구로구, 경기도 광주시, 연수구, 중랑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원주시 , 부산진구, 진주시, 대구 동구, 동대문구, 아산시, 광진구, 하남시, 울산 남구, 도봉구	39개(시 10개, 구 29개)	79.5%
50만명 이상	18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장흥시, 화성시, 성남시, 청주시, 부천시, 천안시, 송파구, 천주시, 안산시, 인천 서구, 평택시, 안양시, 강남구 , 강서시 , 당서구	24개(시 17개, 구 7개)	75.0%
합계	115개소		226개	5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합」, 2023년 / 행정안전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nso.go.kr>에서 일자 재구성

기초 문화재단 인력 및 예산 현황

기초 문화재단 인력 현황

- 전체 인력 규모는 7,212명(정규직 4,961명, 기타 2,261명)으로, 평균 인력 규모는 63명으로 나타남
- * 평균 사업 수 40개

년도	기초문화재단 인력 현황(명)		
	계	정규직	기타(계약직 등)
2023년(115개소)	7,212	4,961	2,261

기초 문화재단 예산 현황

- 전체 예산 규모는 1,070,910,000,000원으로, 평균 예산 규모는 9,310,000,000원으로 나타남

년도	기초문화재단 예산 현황(억원)	
	합계	평균
2023(115개소)	10,709.1	93.1

인천시 기초문화재단 인력 및 예산 현황

인천시 기초 문화재단 인력 현황

- 전체 인력 규모는 308명(정규직 246명, 기타 62명)으로, 평균 인력 규모는 62명으로 나타남
- * 평균사업 수 34개
- * 인천문화재단 : 96명(56명/40명), 112개 사업

년도	인천시 기초문화재단 인력 현황(명)		
	계	정규직	기타(계약직 등)
2023년(5개소)	308	246	62

인천시 기초 문화재단 예산 현황

- 전체 예산 규모는 46,980,000,000원으로, 평균 예산 규모는 9,396,000,000원으로 나타남
- * 인천문화재단 46,020,000,000원

년도	인천시 기초문화재단 예산 현황(억원)	
	합계	평균
2023년(5개소)	469.8	93.9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합/예산 및자 재구성

문화적 권리와 문화 공공성

✓ 문화공공성

-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

- 공공성 지표 :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



* 출처 : 김창수(2013), 「인천광역시 문화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개방성’(openness)

- 시민들이 문화 프로그램과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정책 수립 과정과 시설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 향유 가능성 측면에서의 접근성, 과정과 절차라는 측면에서의 공정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치로 교통 접근성이나 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 문화사업에 대한 접근성,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
- 시민들이 정보의 제약이나 시간·공간적 한계, 경제적·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문화 향유에 곤란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개방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개방성은 시설과 프로그램, 조직 운영까지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

문화적 권리와 문화 공공성

‘평등성’(equality)

- ‘모든 시민이 성별, 나이, 인종,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문화 향유의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부여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형평성’의 문제와 밀접상통
- 문화현장에서 제시하는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평등성)’와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형평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형평성이 보장된 문화적 공유’가 평등성의 핵심이며, 이는 문화소외계층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기능

‘다양성’(diversity)

- 다양성은 문화의 특성에서 도출되는 가치로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협약』(2005)에서는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교류와 혁신,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 문화 다양성은 시민 생활과 문화 활동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적 자원이며 문화적 자주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기초로, 다양성은 공공성이나 평등성에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가치를 보완
- 시민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 받지 않아야 하며, 국내의 타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

‘지속성’(sustainability)

-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문화 조직 및 공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문화적 권리와 문화 공공성

평가 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1. 시민참여	시민참여 제도화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여부	1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질, 운영 여부	3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질, 운영 여부	4
2.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4. 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5.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문화재단 문화공공성 지표 : 기본지표

평가 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비고
1. 시민참여	시민참여 제도화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여부	1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질, 운영 여부	3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질, 운영 여부	4
2.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4. 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5.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1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2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3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4

문화재단 문화공공성 지표 : 설문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내용
시민참여 제도화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운영 여부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질, 운영 여부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질, 운영 여부

문화재단 문화공공성 지표 : 전문가 평가지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다양성'의 구현수준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성'과 '지속성'의 구현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부평아트센터
- '개방성', '다양성', '지속성' 측면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성' 항목은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문화적 권리와 문화 공공성 구현

✓ 시민 주도

- 시민들이 모은 의견과 의지 반영, 시민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한 이해, 해석, 실행
- 창작자와 수용자를 포괄해 거주민 일반으로 시민 개념 확대 : 전문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 활동의 협력 강화,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행위의 공공성 강화
-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문화 다양성 사업 확대를 통한 시민 문화 역량 강화
-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연결과 협업 촉진 : 시민, 예술가, 전문가, 행정가, 기획자, 매개자 등을 연결



문화적 권리와 문화 공공성 구현

✓ 지역 공유 자산의 축적과 개방

- 마을 자료실 운영 : 지역역사문화자료, 공공기관 발간자료, 마을공동체 활동기록, 주민자치 활동자료 등
마을기록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록 동아리 운영, 마을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

- 정기적인 문화 실태조사, 시민 구술 기록 등

- 문화예술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축 : 부평 문화 위키

- 공공 저작물 개방 : 공공누리 활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 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자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부평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부평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문화적 권리와 문화 공공성 구현

✓ 협력 체계에 기반한 재단 사업 수행

- 재단 문화위원회 설치 : 100여 명 규모(각 동별, 성별, 세대별, 소수자, 문화기관, 문화 단체, 연구자, 관계 기관 공무원 등)로 구성하여 재단의 전체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참여

-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협력 강화 : 환경, 교육, 복지, 도시재생, 마을 정책, 사회적 경제 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확대 :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개개인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이 협업하고 협력하는 체계 구축

- 통합적 시각에서 문화 공간 활용 계획 수립 : 재단 운영 문화 시설과 민간 문화공간(부평 별곳 등)의 연계 활용, 생활 속 문화 공간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정책 주체 확대 : 시민, 예술인, 전문가,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문화정책 네트워크 형성

행정적 합리성은 내적 정당성을 지향함

행정 체계 안에서의 합리성이 강화되면 월수록 현실적 합리성과 멀어짐
행정적 합리성이 내적 정당성이기 때문에 행정 체계는 스스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음

행정 체계를 변화시키는 유력한 방법은 시민의 참여와 대표의 역할임

새로운 변화에 대응

✓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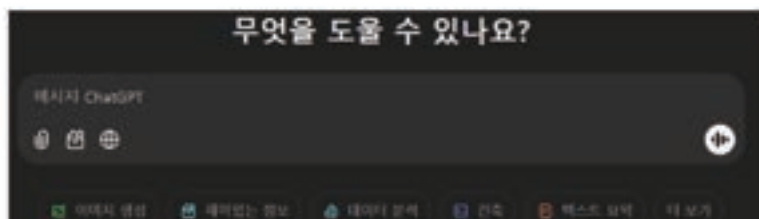
- 기후변화, COVID-19 등 환경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위기의식 심화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와 에코 라이프 부상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문화 정책 방향 제시(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변화에 대응

✓ AI 등 기술 변화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컨설팅과 인력 연계
- 디지털+문화예술에 대한 실험적·혁신적 활동 추진
- 온라인 콘텐츠 확대를 통한 접근성 확대
- 인공지능 기술 혁명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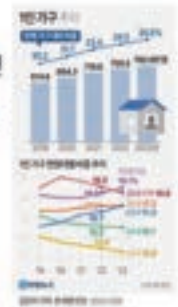
새로운 변화에 대응

✓ 인구 변화

-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 변화 지속
- 합계 출산율 1명 이하로 감소, 기대 수명과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자녀가 없는 세대 및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거주자 증가
-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여가 활동 및 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 증가, 축소된 가구 규모와 1인 가구의 생활 방식에 따른 문화 활동 변화,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 부각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평구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 영역의 대응 방안 마련

부평구 합계 출산율 0.637명	인천시 합계 출산율 0.694명
부평구 고령인구 비율 17.7%	인천시 고령인구 비율 16.6%
부평구 1인 가구 비율 31.5%	인천시 1인 가구 비율 31.8%
부평구 다문화 가구 비율 3.5%(7,234 가구)	인천시 다문화 가구 비율 2.4%(30,406 가구)

자료 : 「2024 인천사회지표」, 인천광역시



새로운 변화에 대응

✓ 혐오와 집단 갈등 :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 사회 혐오와 집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혐오를 해소하고 문화 다양성 및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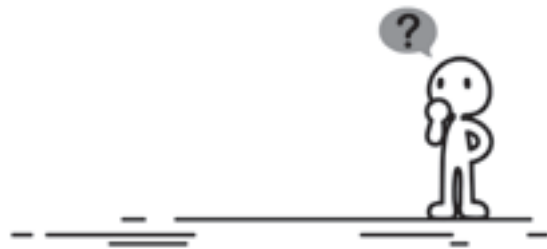


While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and health are all top sources of meaning, they vary in importance across cultures surveyed.

Country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Australia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France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Germany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Italy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Japan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South Korea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Spain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Sweden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Switzerland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United Kingdom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United States	Family	Career	Material well-being	Friends	Health

2021년 11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What makes life meaningful?)라는 주제로 경제순위 상위 17개국 국민들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각국의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사로 질문방식은 특별한 선택지가 없는 개방형(open-ended question)이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묻다,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김태연 | 문화기획자, 예술작가



열아홉, 2025년까지 부평구 문화재단은.

우리의 방향을 묻다,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의 생태계

김태연

Page 01

목차

01

발제자 소개

시민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기획자, 사운드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02

발제 배경 및 목적

부평 문화 활성화 및 협력필요성과 목적

03

부평구 문화재단과 기획자의 협력

문화기획자의 역할과 협력 사례

04

주요과제

공정성, 지속성, 예술성

05

사례 분석 및 문제점

사례를 통해 협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06

결론 및 제안

결론 도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Page 02



사운드 아티스트가 지역 문화기획자가 되었습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김태연은 부평구문화재단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작가이자 지역문화 기획자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in thousand (in 1000)을 운영하며 인천시교육청 주립학교와 부평구문화재단 디지털뮤직에서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주최·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문화도시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에는 부평 문화제거의 행위단장에 대한 공간인 아트스페이스 실험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연 작가는 현장에서 작가로 활동하며 현재 부평에서 예술인들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보존'하는 전시 및 공연 시스템 만들 및 기획 업무를 맡고 있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 콘텐츠 창로별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한국문화도시협의회 회장상
(한국문화도시협의회)

Page 03

타임라인

부평과 함께 시민에서 문화기획자 그리고 자의 사업체가 만들어지기까지



Page 04

발제 배경 및 목적

배경

- 부평구문화재단은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됨
- 법정문화도시 사업종료 경제적 긴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비전과 협력 필요
- 지역 문화기획자는 문화정책 성공의 핵심 파트너로서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아야함

목적

- 부평구문화재단과 지역 기획자의 협력방안
-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와 정책적 지속성을 위한 대한 모색

Page 05

부평구 문화재단과 지역 문화기획자의 협력

문화기획자의 역할

-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지역커뮤니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문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파트너

협력 사례

- 음악융합도시 사업 및 법정문화도시 사업참여
- 대안공간 운영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 지역을 주제로 전시기획 및 타지역 작가와 협업작업

Page 06

협력사례 _ 1

음악융합도시 사업 및 법정문화도시 사업참여

Page 07

협력사례 _ 1

음악융합도시 사업 및 법정문화도시 사업참여



Page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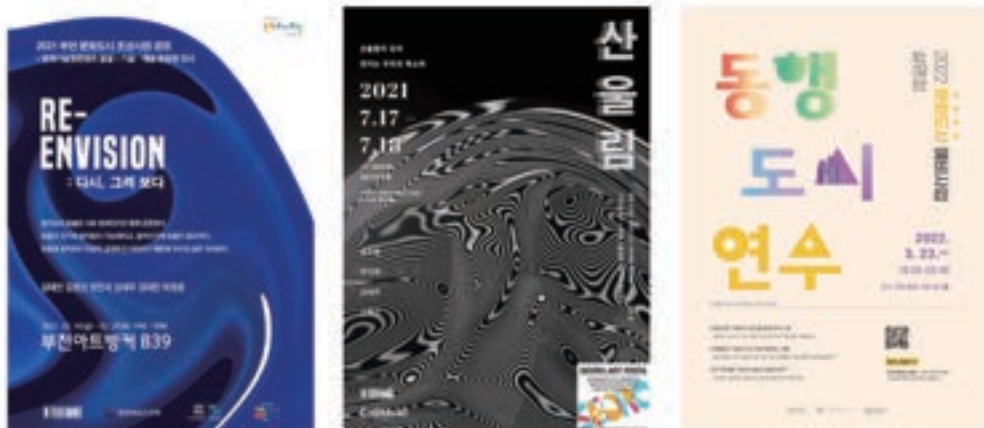
협력사례 _ 2

대안공간 운영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Page 10

협력사례 _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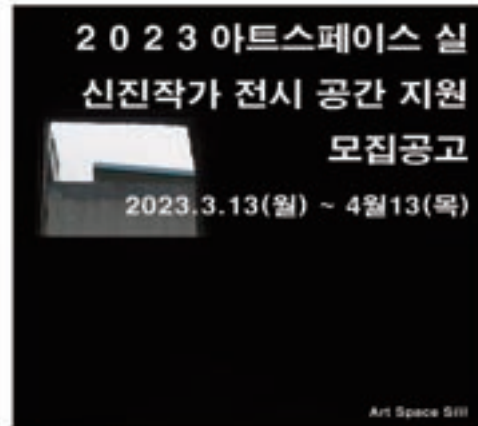
음악융합도시 사업 및 법정문화도시 사업참여



Page 09

협력사례 _ 2

대안공간 운영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Page 11

협력사례 _ 2

대안공간 운영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부평구문화재단 프로그램



부평구문화재단 공모사업



인천시교육청 교육사업

Page 12

협력사례 _ 3

지역을 주제로 전시기획 및 타지역 작가와 협업작업

Page 13

협력사례 _ 3 지역을 주제로 전시기획 및 타지역 작가와 협업작업



Page 14

성장단계



Page 15

주요 과제

공공성

- 공공성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 창의적 아이디어, 융복합예술, 서브컬처 등 지역에 새롭게 도입된 예술 장르에 대한 평가절하

지속성

- 장기적인 지역 예술 생태계 부족
- 지역 기획자들의 의욕을 저하하는 행정적 한계

예술성

- 실험적 콘텐츠 및 다양한 장르 지원 부족
-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술성 증대 필요

Page 16

사례 분석 및 문제점

사례 요약

- 문화사업 운영의 경직성 및 창의적 접근부족
- 기존 기획자들이 행정 부담으로 배제되는 문제

문제점 분석

- 재정적, 행정적 제약이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저하
- 주민 중심 문화사업에서 예술성과 혁신성 간 균형 부족

Page 17

결론 및 제안

사고의 전환

- 다양한 분야 심사위원 구성 실효성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
- 정량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문화가 사회전반에서 가지는 무평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각

지속성 확보

-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
- 단계별 추진 로드맵 설계

예술성 강화

- 실험적 예술, 다양한 예술장르 지원 확대

구체적 제안

- 주민 주도형 문화 플랫폼 구축
- 법정문화도시 이후의 장기적 비전 수립

Page 18

결론 및 제안



길을 가던 청년이 일을 하던 노인에게 물었다.
"부평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는 다 다르다.

Page 19

결론 및 제안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우리는 다 다르다.

Page 20

결론 및 제안



청년은 다시 물었다.
"어르신, 부평역까지 가려면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는 다 다르다.

Page 21

결론 및 제안



노인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으며, 잠시 후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다 다르다.

Page 22

결론 및 제안



화가 난 청년은 돌아가려 했고, 그때 노인이 청년을 불렀다.

우리는 다 다르다.

Page 23

결론 및 제안



"이보게, 청년. 내가 생각해보니, 청년의 걸음으로는 10분이면 갈 수 있겠지만, 나의 걸음으로는 30분이 걸린다네."

우리는 다 다르다.

Page 24

결론 및 제안



우리는 다 다르다.

이 이야기는 각자가 처한 위치와 경험에 따라,
시간과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다를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타임 리버스

타임라인 거꾸로 돌리기



대화가 필요해

함께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서로의 시각을 넓히고 협력의 힘을 발휘하는 첫걸음입니다.

부평구의 문화 성장은 각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동의 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의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Page 27

결론 및 제안



우리는 문화도시에 다다르다.

Page 28

발제 토론 주제 제안

부평구 문화재단과 지역 문화기획자의 협력모델

Page 29

열아홉, 2025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은.

토론

좌장 : 안영노 |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안태호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서광일 | 부평풍물축제 기획단장

김유정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김창길 |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

문화공간연구소
사랑방무예
부평문화재단
생활문화부평
센터 아트센터

2023 부평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2021 법정
문화도시지정
2017 부평생활문화센터 개관
2010 부평아트센터 개관
2016 예술경영 우수
전문예술법인 인증
2015 부평구문화재단
창립 20주년
2026 부평구문화재단
10주년 기념식
2007 부평구문화재단 출범

ESG·인권경영
문화
문화예술이키브

2022 부평구문화재단
10주년 기념식

비전과 사업의 균형잡기

안태호_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1.

한 동안 유행했던 유사 격언 중에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조직에 이를 적용하면 '비전대로 사업하지 않으면, 사업대로 비전하게 된다'로 바꿔볼 수 있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목표와 목적을 뚜렷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며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 보는 것은 상당한 울림을 남긴다. 그러나 동시에 비전은 그 추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양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생각한 대로 사는 것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숙고해보면 비전의 추상성과 '사업'이란 말로 대표되는 현실의 역동적인 구체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비전은 촘촘하게 쌓인 현장의 레이어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문화재단의 비전은 다른 기관과 치환한다 해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다.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계획 연구에 참여한 입장에서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체화하고 적용하려는 재단의 후속 과정 설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조직원들의 현장경험과 중장기계획 간의 거리를 좁히고 이를 재단 사업에 맞게 조율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연구 결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2.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계획 연구 당시 FGI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재단의 지역접촉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실제 문화재단이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진행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20%대에 머무르고 있었고, 부평구문화재단의 단순 인지도는 65.7%로 나타났지만, 실제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물론, 사업에 참여했거나 부평문화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사업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흐릿한 것은 흔한 일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58.8%를 기록하고 있어 간격이 뚜렷하다. 정확하게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시민들에게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식은 재단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중장기계획의 미션에서 '함께'라는 말을 전면 배치하고 시민과 지역,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3.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재단이 그

동안 부평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6개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부평문화사랑방 등 다양한 경로로 지역 시민들과의 접촉면적을 넓혀왔지만, 부평구 전체로 보자면 여전히 생활권 단위의 거점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역의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확장해가며 시민활동을 진작해 가는 것은 재단에게 주어진 가장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부평별곳을 시작으로 민간공간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기조가 한 편에 있다면 주민자치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공차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까닭이다.

4.

2017년과 2018년을 제주에서 지냈다. 첫해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의 개관을 맡은 센터장 역할을 했다. 일하던 곳 근처에 부대찌개 집이 있었는데, 이름도 경기부대찌개였다. 처음 그 식당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제주에서 무슨 부대찌개냐고 이야기했더니, 제주 사람들은 부대찌개도 먹으면 안 되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관광객의 입맛에 맞춘 음식점들이 즐비한 제주에서 거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자리 잡고, 사는 사람 위주의 구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니, 오히려 순서가 바뀐 일이다.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는 지역민의 삶 이후 뒤 따라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역전되면 베니스처럼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반발감이 생기는 거다. 특성화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렇다. 서울에는 뭐든지 있다. 지역에는 뭐든지 있으면 안 되나? 아니, 뭐든지 있기에는 벅찰 수 있지만, 생활의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야 한다. 외부를 바라보고 특정 영역에 몰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특성화는 언제나 다양성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이야기에 적극 동의한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밸런스다. 특성화는 한 분야만을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점을 어떻게 잘 버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5.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와 과대평가가 항상 교차하는 기분이 든다. 예술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냉소적인 시선, 산업적 영향력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드라이한 분석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정책 영역과 문화정책의 연구자 일단은 예술이야말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인 것처럼 취급한다. 예술이 개입하면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도 편안해지고, 세대 갈등도 눈 녹듯 녹게 할 수 있으며, 회색 도시의 답답한 풍경도 흥미롭게 심지어 주민참여를 통해 실용적이며 아름답게 바뀌낼 수 있고, 연계산업 활성화로 경제적 효과마저 창출해내는 지역 활성화의 해결사인 것처럼 이야기된다. 연구에서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제시한 것은 지역 사회의 의제와 문화예술이 별개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역문화 정책을 사회의제와 연결시켜 나갈 것과 문화인력의 축적과 성장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예술을 도구화하는 관점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정책의 의도와 방향, 실행, 수용과 해석 사이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예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예술이 어떤 분야와 만나서 협업을 할 것인지 섬세한 전략을 짜야 한다. 공공미술이 한국에서 환경개선 사업처럼 받아들여졌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사회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 서광일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장)

부평구문화재단은 2007년에 출범하여 지난 19년 동안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기관으로, 문화의 공공성 구현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발제자는 문화 접근성의 향상과 시민 주도의 문화 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또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지난 19년을 돌아보며,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예술인과 단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2007년 출범 이후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재단은 문화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확대해 왔다. 그동안 부평구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사업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19년 인천광역시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지역 예술인 및 단체와의 협력이다. 본 토론자는 1992년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을 부평에서 설립하여 현재까지 부평문화예술진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1995년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설립, 1997년 부평풍물대축제 기획, 1998년 부평문화원 설립, 2002년 국악전용극장 잔치마당 개관, 그리고 2010년 부평아트센터 개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부평구의 문화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 간의 상생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문화적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는 것에 자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역문화재단 운영현황과 문화적 권리 그리고 문화 공공성의 예를 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문화 접근성의 불균형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진 주민들이 여전히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문화적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시민 주도의 문화 자치 활성화의 한계이다. 시민들이 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부족하다고 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적 권리와 공공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직면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이다.

AI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구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기술 혁신과 문화 예술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사업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은 앞으로의 문화 재단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화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지난 19년을 돌아보면,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은 향후 20년을 대비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평구문화재단과 지역 예술단체 간의 상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문화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계층이 고르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적 소외 계층이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2025년 법정문화도시 종료 이후 부평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문화 예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법정문화도시로서의 성과가 단기적인 이미지 확장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예술단체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부평구문화재단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기술 혁신을 반영한 혁신적인 문화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나 AI 기반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평구문화재단은 향후 20년을 준비하며,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19년 동안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향후 20년을 대비하여 더 많은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문화 접근성의 향상, 시민 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와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 부평을 위한 부평구문화재단의 준비

김유정 팀장(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강구하며, 문화도시로서의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문화창조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가칭)부평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2006년 12월에 설립 되어 정관 제2조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궤적

부평구문화재단은 올해로 설립된 지 19년 차로 설립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설립 당시 16명이었던 정원이 134명으로 8배 이상 증가 되었으며, 2025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 역시 9억 4천여 만 원에서 약 22배 증가한 2백 9억 5천여 만 원으로 커졌다.

2007년 지금은 부평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부평역사박물관과 부평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부평아트센터를 비롯하여 2025년 현재는 부평아트센터, 구립도서관 6개관, 청소년수련관, 부평문화사랑방, 성문화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문화공간 시소, 문화공간 음악연습실 음악마루까지 부평의 문화시설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평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 성장을 하였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처음에는 문화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운영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크게 보면 2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문화시설 관리 중심에서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계기로 기초 문화재단의 설립이 촉발된 것처럼 부평구문화재단의 운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15년 1월 변화하는 문화정책 및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 수립으로 기초 문화재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2본부 3개 위탁기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2016년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및 2021년 생활문화센터 개관 등 시설 운영 중심에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통해 재단의 역할을 확장했습니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1년 제2차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2022년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민 스스로 부평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고 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를 통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함으로써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시설 관리 운영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2015년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지역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 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민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진정한 문화사업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재단의 존재감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재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변화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제2차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일 것이다.

이제 2025년도에는 5년간 진행하는 제2차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부평구문화재단은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새로운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평구문화재단은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문화예술 사업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매년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부평만의 차별화된 문화자원인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역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방식의 사업과 일부지만 직접 사업을 평가하는 시민 주도 방식의 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다.

기초 문화재단은 지역민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고유의 가치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문화시설 운영 사업에서 수요자 중심인 지역민의 자율적 참여를 지향하는 문화도시 관련 예산 지원이 종료된 2026년부터는 과연 부평구문화재단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민과 교감하면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체육이라는 분야가 대중화된 것처럼 문화도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기간과 별개로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로 현재의 조직이 아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민의 트렌드를 예측해 재단 운영 방향을 제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부평구청에서 지원받는 출연금 및 민간 위탁금 등 부평구청 지원 중심의 예산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은 3본부 1센터 4개 위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문화도시센터로 되어있는 재단본부와 청소년

수련관, 성문화센터, 상권르네상스센터, 청소년꿈나래터 등 4개 위탁기관으로 정원 134명의 조직이다.

하지만 총정원 134명의 중 약 46명¹⁾만이 부서별 이동이 가능한 인사 발령의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향후 부평구문화재단이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지속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련 예산이 확보될 때 가능할 것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약 2백 9억 5천여 만 원으로 이중 문화도시와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1백 7십억 원 정도가 된다. 이는 문화도시와 상권르네상스 사업 이전 예산과 비교할 때 약 10억 여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이다. 물론, 부평구의 재정 여건으로 감액된 것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 부평구문화재단은 어떤 모습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상생·협력할 것인지 함께 논의가 이제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총정원 134명 중 무서장 이상, 서서·기술·청소년 관련 인원 등 총 88명을 제외한 인원으로 문화도시 임기직 미급 7명 포함 인원임.

부평구 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가의 파트너십 : '어차피'와 '그래도' 사이에서

김창길(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

지역 문화재단이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폭과 범위는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나 지역화 전략을 위한 파트너 확보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가 또는 활동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과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간다.

김태연 발제자 또한 부평구 문화재단과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시민에서 작가이자 지역문화 기획자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는 공공기관과 민간예술인 또는 시민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말을 너무도 쉽게 사 용하지만 막상 서로가 진정으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부평구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의 파트너, 문화시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정말 부평구 문화재단이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까?

김태연 발제자는 주요과제로 공공성, 지속성, 예술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공공성에서는 공모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창의적 아이디어 보다는 행정적 가능성 또는 안정성 위주의 사업 선정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한다. 그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변해가고 그에 맞춰서 예술가들의 활동 또한 변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예술가는 소외 당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얘기한다

지속성에서는 장기적인 지역 예술 생태계의 부족을 얘기하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의욕을 꺾게 만드는 행정적 문제를 본인의 사례를 들어 얘기합니다. 성공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진행되었고 진행되던 사업들이 갑자기 행정적 문제(감사) 때문에 어떠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사업 단절을 통보 받는다거나 협력적인 파트너로서 활동했던 부평문화재단과의 갑작스런 불통 등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의 어려움을 얘기한다.

예술성에서는 실험적 콘텐츠 및 다양한 장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과 그래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예술성 증대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주요과제에 대한 해결 제안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화기획자와의 협력체계 개선 및 투명한 사업 선정 절차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설계를, 예술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험적 예술과 다양한 예술장르 지원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몇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성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창의적인(영동한 상상) 활동이 행정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적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과 '형식적 형평성'이 부딪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 제로섬 게임에 빠져서는 예술인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뿐이다. 절대적으로 예산의 파이를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평문화재단의 진심어린 피드백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평구 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가의 협력모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한다.

신뢰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조금씩 쌓이게 된다. 상대가 자신이 가진 생각을 나에게 솔직히 말해줄 거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냥 공유만 한다고 신뢰가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각 개인이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각 참여자는 각각이 저마다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순간의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같이 바라보며 협력하고 소통할 때 가능할 수 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 위한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종종 우리는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공감회나 원탁회의 같은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소통 플랫폼을 마련하여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아이디어, 과제 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막연한 실무협의 보다는 작더라도 실제 사업을 통한 만남이 중요하다.

셋째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동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두가 성과 지표를 세우고 그 성과를 평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로의 책임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는 서로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줌으로써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호혜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평구 문화재단에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재단의 노력만이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들의 응원과 노력이 보태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른 또 하나는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이다. 순환보직제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당사자의 안목을 넓히고 오랜 근무를 통한 매너리즘이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어려워지게 만든다. 사업의 특성에 따른 문화재단 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단 담당자가 기획하고 준비한 사업을 예술가와 시민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지역 생태계와 필요를 잘 아는 예술가와 시민이 기획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협력 해가면서 부평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부평문화재단이 부평의 예술가와 예술단체, 시민들을 단순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만들고 함께 사업을 준비하며 실행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역량을 키운 예술가와 시민들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상상

해보자.

생태계 조성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를 전제로 한다. 부평구의 문화생태계 역시 지역문화 정책의 의도적인 행위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는 방향과 과정을 수반한다.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 얽매인 '어차피'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라는 변화의 의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안녕하세요,
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문 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032-500-2013)

[illegible]